

# 전북식품 우수성, 북미 전역에 널리

### 바이오진흥원, 뉴욕 패니푸드쇼서 농식품 홍보관 운영... 154만불 수출 상담 성과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북미 현지 시장개척 재개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미국뉴욕패니푸드쇼(New York Fancy Food 2022)에 도내 3개 기업이 참가해 전북농식품을 소개한 결과 154만불의 현지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의 지원으로 박람회 참가한 도내 3개사(5품목)는 박대, 육포스낵, 두부 가공식품 등을 홍보·전시했으며 전북농식품을 찾아온 북미 및 세계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 동안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내방객들의 호응 속에 바이어들과는 총 4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산에서 두부를 생산하는 R사의 경우, 코스트코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대형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QXC북미법인과 면두부 수출상담을 진행한 결과, 하반기에 5만불 가량의 샘플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스페셜티 푸드 협회(SFA)가 개최하는 '뉴욕 패니푸드쇼'는 8만 중 이상의 상품들이 전 세계 1,900여개의 기업들을 통해 선보이는 세계적인 식

품박람회이다. 스페셜티 푸드는 각 식품 카테고리에서 최상의 품질과 특성을 가진 식품 또는 음료를 말한다. 주최사에 따르면 2021년도 스페셜티 푸드의 총 판매액은 1,750억 달러로 2020년 이후 7.4% 상승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뉴욕 패니푸드쇼'에 참가한 A기업은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새 감자와 고추장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뛰어들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엔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전라북도 바이오진흥원의 지원으로 수월하게 박람회 참가를 할 수 있었다면서 "신규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미국 뉴욕 패니푸드쇼와 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전북농식품을 운영했으며, 산남방 및 유립 등 다양한 지역의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실질적 수출 성사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북미 현지 시장개척 재개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미국뉴욕패니푸드쇼(New York Fancy Food 2022)에 도내 3개 기업이 참가해 전북농식품을 소개했다.

### 국민연금 홍보 콘텐츠 공모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고자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2022년 국민연금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4개 부문(슬로건 동영상 카드뉴스 포스터)으로 개최되며, 초등학교(동일 연령 어린이) 참여 가능한 포스터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변화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고려하고, 연금개혁 당사자인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현재 주 기금 연령인 3~40대 부모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포스터 부문을 별도로 마련했다.

공모주제는 '국민연금 관련 모든 이야기'이며 세부 주제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나의 노후 △국민연금의 장점 또는 필요성 △내가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유 주제로 부문별 공모 형식에 맞추어 작품을 만들면 된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www.nps.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부문별 공모 형식과 참고사항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오는 9월 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총 54개 작품 부문별 최우수 1명(팀), 우수 2명(팀), 장려 3명(팀), 포스터 입선 30명)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나리 원교 C1-142호



나리 그린스타



나리 오렌지크라운

## 절화용 '나리', 경관용으로 매우 좋아요

최근 공원이나 화단, 화분용 식물로 관심받고 있는 나리를 경관용으로 심기 위한 관련 연구와 품종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미 개발한 절화용 품종 가운데 색과 세력이 우수한 품종을 경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품을 넓혀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백합으로 알려진 나리(백합의 순우리말)는 6~8월에 꽃이 피는 대표 여름꽃이다. 배양지에서 최소 3년 정도 자란 다음 꽃을 볼 수 있고 알뿌리(구근)를 대상으로 증식하는데 2년~3년이 걸린다.

농촌진흥청에서 기존에 개발한 국내 나리 품종 가운데 경관용으로 알맞은 품종과 새로 개발한 계통을 16일 품종 평가회에서 소개한다. 2009년 개발한 '다이아나'는 선명

다이아나·그린스타 오렌지크라운 등 농진청, 화분용으로 좋은 원교 C1-142호 등도 소개

하고 진한 노란색의 꽃이 공 모양으로 핀다. 꽃이 위쪽을 향해 피는(상향개화) 품종으로, 식물 세력이 우수해 경관용으로 손색이 없다.

2007년 개발한 '오렌지크라운'은 환경 적응력이 우수해 경관용으로 이용할만한 가치가 높다. 꽃 색이 선명한 밝은 주황색을 띠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

2005년 개발한 '그린스타'는 초록 빛을 띠는 연한 노란색 품종이다. 꽃잎에 반점이 있는 일반 나리와

달리 반점이 없어 깨끗한 느낌을 준다. 화단에 심어도 잘 자라고 꽃이 일찍 피는 특징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품종 외에 화분용으로 좋은 새로운 계통도 선발했다. 진한 빨강의 원교 C1-142호와 꽃잎 끝이 분홍색으로 물든 듯한 원교 C1-143호는 기존 나리보다 키가 작아 화분에서 재배하기 쉽다. 두 계통은 올해 소비자화 농가의 평가를 받은 뒤 2023년 품종화할 계획이며, 알뿌리를 증식해 시범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원희 과장은 "지금까지 잘 다져놓은 다양한 나리 육종 연구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관용 나리 연구에 박차를 가해 화훼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중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중기중양회, 토론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해 온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에서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스마트공장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협적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김수영 교수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품질을 높여주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내 가치사슬과 제조현장 4M(사람, 기계설비, 재료, 방법) 데이터 기반의 공정운영관리 방법이 기업별로 설계되어야 하고 급변주 출하변경 등 환경변화에 최소시간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 비용으로 고객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낭비와 불필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해야 스마트공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용희 동아대 교수,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김은하 KIEP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천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 전기차 이용 지역주민에 전개공 사옥 주차장 개방

### 부지사용 협약 따라 24시간 무료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옥 주차장 부지내에 공공 급속충전기 2기를 설치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환경부와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부지사용 협약을 맺고 사옥 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최근 3천여에 걸친 성능검사를 완료했다.

공사는 부지사용 협약에 따라 지역 주민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24시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공공급속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와 달리 30분내 충전이 가능하며 한번 완충으로 평균 2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연내 급속충전기 1기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중진 공공차량도 100% 친환경자동차(수소차 1대, 전기차 3대)로 교체했다. /김윤상 기자



한편, 공사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중진 공공차량도 100% 친환경자동차(수소차 1대, 전기차 3대)로 교체했다. /김윤상 기자

## 한hun 신임 통계청장, 호남통계청 방문

한hun 신임 통계청장은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호남지방통계청장 김대호(호)를 방문했다.

한hun 청장의 이날 방문은 호남지방 통계청의 2022년 중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통계데이터 광우센터(SDC) 활성화를 담부하고, 전통시장(양동시장)을 방문해 호남지역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 청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점점 어려워져가는 조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조사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대의 요구를 빠르게 이해해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트렌드에 맞는 통계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호남청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경제통계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15일부터 실시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호남청은 지지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요 파악을 실시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역통계 개발을 확대하고, 통계데이터 광우센터(SDC)를 활성화해 호남·제주지역의 데이터 허브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녀 대규모 조사인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제통계 통합조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hun 통계청장은 호남지방청 업무보고 이후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방문하여 최근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통계조사 응답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김윤상 기자